

# 광주·전남-전북, 한국학호남진흥원 통합 논의

### 전북도, 부안 전라유학진흥원과 통합 제안...장소 선정 관련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버금가는 규모 설립위해 용역 발주 필요

전북이 특별자치도 지정을 추진하는 등 갈수록 틈이 벌어지고 있는 광주·전남과 전북이 한국학호남진흥원 통합 문제를 물밑에서 논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도가 공식적으로 부안의 전라유학진흥원과 광주의 한국학호남진흥원을 통합하자고 제안했으며, 광주·전남은 호남을 상징할 수 있는 장소에 안동 한국국학진흥원과 버금가는 규모로 설립하기 위해 용역 발주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8년 광주·전남·전북이 조선시대 호남유학문화를 계승할 기관의 공동 설립을 약속했으나 장소 선정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으로 전북이 이탈한 바 있어 세심한 사전 협의를 통해 호남 사·도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8일 전북도의회에 출석한 김관영 전북지사는 김정기의원(문화건설안전위·부안)이 호남권 유학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자 광주·전남·전북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전라유학진흥원과 한국학호남진흥원의 통합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2024년 말 전라유학진흥원이 준공된다는 점을 고려해 1단계로 2023년까지 그 건립 위치와 통합 명칭을 결정, 2단계로 2025년까지 진흥원 업무조직 통합을 추진하고, 3단계로 2027년까지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통합 운영 시책을 기획해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전북 부안에 들어서는 전라유학진흥원은 전북의 유교 자원을 발굴하고, 디지털 보존·연구 기능을 아우르기 위해 국비 50억원 등 100억원 규모로 설립이 추진 중이다.

광주·전남은 그동안 호남 내에서 소외를 주장해 왔던 전북과의 상생 협력 차원에서 이 같은 제안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장소를 특정하기 보다는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함께 국내 3대 공립 한국학 연구 및 자료수집보존 기관으로 인정 받고 있는 경북 안동

한국국학진흥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대규모 시설로 상징적인 공간에 자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학진흥원은 60만여 점의 전통기록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유교책판과 다양한 전통건축물의 현판이 있는 등 인문학의 보고로 손꼽힌다. 수장고, 장판각, 한문교육원, 스토리 테마파크, 유교문화박물관, 상설전시실, 인문정신연수원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있다.

현재 광주·전남이 운영하는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자체 청사 없이 광주시공무원교육원에 5년째 입주

해 있다. 광주·전남이 각각 3억원의 출연금을 포함해 106억원을 출자해 설립했다. 현재 5만권의 고문서 등 근대 포함 7만권의 문서와 자료를 보관중이며 호남학의 저변 확대, 자료 수집·분석 등을 위해 공모·강좌·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국비 지원 금액도 2018년에 비해 대폭 상승하는 등 호남학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정부부처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했다.

한국학호남진흥원 관계자는 "장소 선정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으로 전북이 이탈한 뒤 다시 통합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며 "다만 통합장사의 장소를 특정하기보다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호남지역 시도민이나 외지인이 누구나 접근 가능하며, 무엇보다 호남을 대표한다는 상징적인 공간에 대규모로 설치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d@kwangju.co.kr



"우리 경로당 우승 실화나" 광주 서구지역 동별 66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치러진 전통민속놀이의 본선 대회가 19일 오후 광주 서구 빛고을체육관에 열렸다. 고리던지기를 하는 할머니의 표정이 진지하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세계김치축제 '디너쇼'로 품격 높인다

### 오늘 개막...방문객들 와인 곁들인 김치밥상코스 즐겨 김수미 홍보대사·대통령상 명인들, 개막식 열기 더해

광주세계김치축제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맛을 선보인다.

광주시는 "제29회 광주세계김치축제 개막일인 20일 오후 6시 와인을 곁들인 '김치디너쇼'를 열고 방문객을 맞이한다"고 밝혔다.

김치디너쇼는 이번 광주세계김치축제 메인 행사인 '대한민국 김치 경연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치 명인들과 함께하며 광주김치타운 중앙광장 주무대에서 150석 규모로 열린다.

수상자들은 자부심이 담긴 갓동치미, 꽃게 배추김치 등 수삼작 김치와 호박죽, 찹쌀, 편육 등 김치와 어울리는 음식을 코스 형태로 6차례 선보이며 참석자들은 와인 등과 함께 음식을 즐길 수 있다.

또 광주세계김치축제 명예위원장이자 홍보대사인 김수미 배우가 직접 광주 대표 김치를 소개하는 등 행사 진행을 맡을 예정이다.

김치디너쇼에 참석을 원하는 방문객은 현장에서 1만원의 체험료를 내고 선착순으로 참여하면 된다.

올해 행사는 광주시가 한국 전통발효음식인 광주김치를 세계에 알리고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방문객들이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열기 위해 기존 의례적인 개막식을 탈피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김치디너쇼 종료 후에는 불꽃축제와 초대가수 개막 콘서트 등도 예정돼 있다.

박정환 광주시 경제창업실장은 "매년 진행했던 딱딱한 개막식 보다는 광주김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방문객들이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김치디너쇼'를 준비했다"며 "명인들의 작품인 김치와 어울리는 음식, 와인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일본·대만·마카오, 무사증 입국 재개

### 11월부터 코로나로 중단됐던 91개 국가 적용

정부가 한시적으로 무사증(비자) 국내 입국을 허용했던 일본, 대만, 마카오에 대해 기한 없이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회의에서 법무부로부터 8개국(지역) 국민의 국내 무사증(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내용의 무사증 입국 재개 방안을 보고받았다.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는 국가는 일본, 대만, 마카오 등 아시아 지역 3개국과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사모아, 통가 등 태평양 5개 도서국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우리 국민의 자국 입국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 국가들이다.

정부는 일본, 대만, 마카오에 대해서는 지난 8

월부터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또 태평양 5개 도서국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 금지 조치를 유지해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이후 국내에 무사증 입국을 중단했던 91개 국가(지역) 모두에 대해 무사증 입국 제도를 적용하게 됐다.

한국에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모두 112개국으로, 국내 무사증 입국 금지 조치가 모두 풀린 것은 2년 6개월만이다.

정부는 일본에 대해 지난 2020년 3월9일 국내 무사증 입국을 중단했으며, 같은해 4월13일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한 다른 국가(지역)에 대해서도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한 바 있다. /연합뉴스

## 광주 코로나 증가세...독감 유행 트윈데믹 우려

### 지난주보다 35.2% 늘어...의료대응체계 개편키로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독감 유행과 겹쳐 트윈데믹이 우려된다. 방역당국은 특히 소아계층에서 계절독감과 코로나 19가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 대응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5일간 광주 일평균 확진자는 544.4명으로 지난주(402.6명)보다 35.2% 늘어났다.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8.9명으로 13일(31.8명)과 비교해 22.3% 증가했다. 지난 8월 넷째 주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증가세로 전환했다.

위중증 환자는 3~5명을 유지하고 이달 들어 사망자는 6명으로 안정세를 보이지만 중증화와 사망자 증가는 확산 시점부터 1~2주 후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60대 이상 확진율도 7월 13.2%에서 8월 21.8%, 9월 23.1%, 10월 24.9%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 변이 검출, 독감 조기 유행 등 위험 요인이 있다. 이달 초 독감 의심 환자는 9월 말보다 44.8% 증가해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현실화했다고 광주시는 판단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오

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검출률은 우세종인 BA.5 검출률이 89.3%로 전주보다 1.3%포인트(P) 감소한 반면 다른 변이의 검출률이 소폭씩 올랐다. BA.5의 하위인 'BF.7' 검출률은 1.8%로 0.5%P 상승했고, 일명 '켄타우로스'라고 불리는 BA.2.75 검출률은 3.3%로 역시 0.5%P 올랐다.

BF.7은 BA.5보다 스파이크 단백질 1개 추가 변이를 갖고 있어 전파력과 면역 회피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트윈데믹이 심화하면 각급 병원에 호흡기 환자가 넘치게 되고 이중 검사로 혼선이 생길 수도 있다"며 "소아 중심 호흡기세포 융합 바이러스(RSV) 등 호흡기질환 환자가 늘어나면서 멀티데믹이 우려되니 백신을 적극적으로 접종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처분하기 힘든 모든 부동산 교환**  
하실분. 010-3605-5000

**지분 임야, 땅 사드립니다**  
맹지사절. 010-3605-5000

상가매매(상무지구) (유형적합)	신축 원룸 매매	경매교육 [ 기초반 ] [ 특수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심 상업지구</li> <li>▶ 유흥가능 (전용 100평)</li> <li>▶ 시세 - 10억</li> <li>▶ 급매 - 6억8천</li> </ul> <p>(보3천, 월수익 380만, 용 4억) (유흥가능, 사무실, 뼈, 룸, 홀덤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수익 - 720만</li> <li>● 연수익 - 9000만</li> <li>● 매가 - 14억5천 (용자 7억)</li> </ul> <p>신축원룸 (공실없음)</p>	<p>* 경매실전 전문반 모집 (선착순10명) (경매기초교육부터 ~ 실전투자 수익창출까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li> <li>2) 중급반 (실전부터 ~)</li> <li>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li> <li>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li> </ol>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남구 지석동 (토지) ▶</td> <td>감정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td> </tr> <tr> <td>광산구 수완동(윤슬의아침) ▶</td> <td>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td> </tr> <tr> <td>북구 삼각동 (여린이집) ▶</td> <td>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td> </tr> <tr> <td>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td> <td>감정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td> </tr> <tr> <td>광산구 하남동 (공장) ▶</td> <td>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td> </tr> <tr> <td>서구 농성동 (토지) ▶</td> <td>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td> </tr> <tr> <td>서구 풍암동 (토지) ▶</td> <td>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td> </tr> <tr> <td>북구 용봉동 (근린상가)▶</td> <td>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td> </tr> </table>	남구 지석동 (토지) ▶	감정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	광산구 수완동(윤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	북구 삼각동 (여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	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	서구 농성동 (토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	서구 풍암동 (토지)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남구 지석동 (토지) ▶	감정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																	
광산구 수완동(윤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																	
북구 삼각동 (여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																	
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20억4천																	
서구 농성동 (토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																	
서구 풍암동 (토지)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b>010-6670-9800</b>		<b>010-2614-9801</b>																